

전남 서부권

목포대 천일염 산업화 박차

개발 사업단, 기술이전 14건에 특허출원·등록 7건 등 큰 성과

목포대학교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사업단'(단장 김인철·이하 사업단)이 지역 특산물인 천일염과 염생식물을 이용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0개월간 지식경제부 주관의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지정됐다. 사업단은 출범부터 현재까지 전남 갯벌 천일염의 학술적 우수성 구명을 비롯해 ▲전남 갯벌 천일염의 품질관리를 위한 DB 구축 ▲전남 갯벌천일염의 가공 핵심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소금 상품화 ▲천일염 품질인증 지표 설정 및 운영지원 ▲천일염 및 합초를 함유한 전통 발효식품의 산업화 ▲천일염 수출 전문 회사 창업지원 ▲합초의 건강기능성 소재화 등에 목표를 두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

였다. 이에 따라 3차년도(2009년 7~2010년 6월)에는 ▲기술이전 6건 ▲지식재산권 13건 특허출원 ▲학술지 SCI 2건·국내학술지 13건 논문 게재 ▲학술발표 국내외 18건 등 성과를 올렸으며, 4차년도(2010년 7~2011년 6월) 역시 ▲기술이전 14건 ▲지식재산권 17건 특허출원·특허등록 7건 ▲학술지 SCI 3건·국내학술지 8건 등의 사업실적을 이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사업단은 지난 4월 '염 관리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대학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소금 품질검사기관은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과 대한 염업조합을 제외하고 민간으로는 국내최초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돼 소금

의 서류, 관능 및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소금 연구기관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aT 유통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천일염제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사업단은 최근 총 10건의 연구성과를 대상-신안천일염(주)와 태평염전, 영진그린식품(주) 등에 기술이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술료 수입 발생에 따른 대학 재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인철 사업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기업연계를 수렴해 5차년도 기술개발목표에 반영, 최종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밀려든 바다쓰레기... 자원봉사단 21t 수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와 도초면사무소, 주민, 자원봉사단은 최근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성촌해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가졌다. 이번 수거행사에는 100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해양쓰레기 21t을 수거했다. /서부취재본부=주원범기자 wncho@

초당대 군사학과 호국의 달 맞아

100Km 산악 GOP 도보 행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초당대(총장 김병식) 군사학과는 지난 20~23일 육군본부와 1군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100Km에 달하는 산악 야전군 GOP 도보행군을 실시했다. 초당대 군사학과는 정예장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3년제 산악 야전군 GOP 도보행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도보행군 코스는 무려 1개 군사령부, 2개 군단, 3개 사단, 15개 연대를 통과하는데다 '피의 능선' 등 한국

전쟁 당시 전적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에 앞서 군사학과는 ▲3월 현충원 참배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방문 ▲4월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방문·한 국형 구축함 '서울함' 승선실습 ▲5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기지 방호 훈련 등을 실시했다. 문현철 학과장은 "이번 도보행군은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서 아시아 줄넘기선수권 대회

내달 21일부터 5일간 개최
日·中 등 10개국 기량 겨뤄

'제6회 아시아 줄넘기 선수권대회'가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동안 목포체육관에서 열린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는 율동도 어린이들이 제패해 화제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73명을 비롯해 홍콩 97명, 중국 47명, 인도 12명, 말레이시아 7명, 일본 35명, 마카오 15명, 싱가포르 28명, 파키스탄 3명 등 10개국 선수 231명과 임원·심판 등 400여명이 참가한다. 14세 이하와 15세 이상 2개 부문에 걸쳐 개인전·단체전·아시아안컵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개인전은 스피드·3단 뛰기·프리스타일 등 3개 분야서, 단체전은 싱글로프 스피드와 더블 언더 릴레이·더블 더치 스피드 릴레이·싱글 로프 페어 프리스타일·싱글 로프 트리 프리스타일·더블 더치 싱글 프리스타일 등 5개 분야서 기량을 겨룬다.

아시아권 굵은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 경기는 줄넘기를 하면서 묘기 경연을 펼치는 것으로 '줄넘기 비보이'를 연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한국 전통놀이 체험관을 비롯해 필리핀의 고무줄놀이, 일본의 요요, 중국 제기차기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전호문 목포대 교수는 28일 열린 대회 준비상황 보고회에서 "성인 남성이 분당 125~140회 줄넘기를 하면 1분에 7kcal, 15분이면 105kcal가 소모돼 줄넘기의 다이어트 효과는 다른 운동보다 3배"면서 줄넘기 예찬론을 폈다. 목포시 관계자는 "줄넘기를 통해 아시아권 국가의 국제 친선 교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종목으로 줄넘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무안 백련의 유혹, 색다른 생태체험

내달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화산백련지서 '문화마당'

백련의 아름다움과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11 무안 백련 문화마당'이 무안군 일로읍 화산백련지에서 다음달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롭게 펼쳐진다. 무안군은 지난 14년동안 '무안 백련 대축제'와 '연산업 축제'를 개최해 왔으나 축제기간 동안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최근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백련 개화 기간동안

주말마다 문화마당을 열기로 했다. 올해 문화마당은 7월 15일 일로읍 바 보존회 주관의 '일로읍바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품바명인 초청공연, 한여름밤의 음악회, 음식 경연대회, 저자거리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와 함께 백련지의 물길을 헤쳐며 하얀 연꽃을 감상하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답사를 비롯해 ▲세계의 다양한 연들을 만나는 세계의 연 전시회 ▲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식물 생태체험장 ▲무안 분청빛기 ▲연차시음·연 염색 등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화산백련지는 7월부터 9월까지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어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사계절 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관광지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화마당 상설화 기간을 점차 늘려 사계절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전 북

지리산에 케이블카 추진

남원시 상황보고회 개최
반선마을~반야봉 6.6km

남원시와 구례군, 경남 함양·산청군 등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에 사도(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7일 실과소 및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사도설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사도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방안 등에 다각적인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09년에 삼성 경제연구소에 의뢰, 지리산 사도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립했으며 지난

해 11월 환경부에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사도설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개정된 자연공원 사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신청할 예정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사도 설치의 산내면 반선마을에서 지리산 반야봉 9부능선까지 총 6.6km에 달하며, 뱀사골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노선이다. 지리산권에는 현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경남 함양·산청군, 구례군에서도 사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이후 지리산 사도 설치에 대한 범 시민적인 공감대형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으로, 지리산 사도유치 선점을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익산 서동축제 서동 선발, 8월 9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오는 8월 26일 익산 송리 문화예술회관에서 2011년 서동축제의 주인공인 뿔 서동 선발대회를 연다. 서동 선발대회에는 출생지가 도내이거나 도내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미혼 남자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8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회에서 선발된 서동은 경주에서 선정된 선화공주와 함께 축제 기간에 서동·선화 혼례식과 행차 등의 행사에 참여하며 축제의 주연으로 활약하게 된다. 1등 서동왕자상에는 상금 300만원, 선성장군상과 계백장군상에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수여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시 학생블로그 기자단 15명 모집

정읍시가 다음달 9일까지 '학생블로그 기자단' 15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나 연고가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학생블로그 기자단'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여동안 정읍의 문화와 역사, 관광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정읍의 다양하고 산뜻한 이야기로 정읍을 알리고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블로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원고별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점수를 인정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농협 라이스센터 개소... 고품질 쌀 생산

남원쌀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남원농협 라이스센터'가 남원시 주성면 상동리에 28일 문을 열었다. 라이스센터는 남원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의 도약을 위해 지난 200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라이스센터는 43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마곡 종합처리장 개념이 아닌 최첨단 최신시설로 연중 균일한 고품질 브랜드 쌀 1만 2000t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부안막걸리, 매년 60억원 상당 일본 수출

부안의 동진주조가 만든 '탄산 캔 막걸리'가 일본 전역에 시판돼 막걸리 한류시장에 가세한다. 부안군은 탄산캔 막걸리 판매 위탁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일본 삿포로맥주사(社)가 일본 전역 유통망을 통해 9월부터 선출입, 음식점 판매와 소매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캔 막걸리는 내년 1월까지 336만 캔(17억원 상당), 이후로는 매월 100만 캔씩 연간 1200만 캔(60억원 상당)을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협의회 창립

정보교류 등 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지역 뿌리산업 기업간 기술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한 '전북도 뿌리산업협의회'가 28일 창립했다. 전북 자동차기술원 주관으로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이날 창립식은 도내 뿌리산업 기업 70여개사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등이 참석했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6개 업종을 통칭하며 소재를 부품화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업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기계산업, 항공 산업 등의 기초가 된다. 전북 뿌리산업 협의회는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일자리 증대 ▲신규사업 발굴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상생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역시 2012년까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생산기반 전문 단지(39만여㎡)'를 만들어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과 주조,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군산 군장 산업단지의 도금협동화단지(3만3000여㎡)에 입주 의사를 밝힌 6개 업체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구조를 고도화하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 원씩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원광대학생들이 최근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에서 김풍으로 넘어진 고추 지주대를 세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원광대생 500여명은 무주군 6개읍면 34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정읍·고창·부안 화장시설 공동 건립

서남권 광역화, 3개 시군 상호협력 체결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광역 공설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한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 3개 시·군은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과 상호 공동의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이 사전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추진하고, 3개 시·군 각 3명씩 모두 9명으로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분담하고 국·도비 공동 확보에 노력하며,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된 날로부터 3년간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